

백령도 사곶해변

6월 6.25 전쟁 당시 백령도 주민들은 이 섬에서 피난 생활을 하다가 1954년 11월 23일 휴전협정 체결로 인해 백령도 주민들은 이 섬에서 이주하게 되었다.

백령도 주민들은 이 섬에서 생활하면서, NLL을 백령도 주민들이 지키고 있다. 백령도 주민들은 이 섬에서 생활하면서, NLL을 백령도 주민들이 지키고 있다. 1999년 1월 1일부터, 2002년 2월 1일부터 이 섬에서 생활하면서, NLL을 백령도 주민들이 지키고 있다. 이 섬에서 생활하면서, NLL을 백령도 주민들이 지키고 있다. 이 섬에서 생활하면서, NLL을 백령도 주민들이 지키고 있다. 이 섬에서 생활하면서, NLL을 백령도 주민들이 지키고 있다.



백령도 사곶해변_정민섭 제공

백령도 주민들은, 이 섬에서 생활하면서, NLL을 백령도 주민들이 지키고 있다. 이 섬에서 생활하면서, NLL을 백령도 주민들이 지키고 있다. 이 섬에서 생활하면서, NLL을 백령도 주민들이 지키고 있다. 이 섬에서 생활하면서, NLL을 백령도 주민들이 지키고 있다. 이 섬에서 생활하면서, NLL을 백령도 주민들이 지키고 있다.



교동도 망향대. 황해도가 고향인 실향민들이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

교동도 망향대. 황해도가 고향인 실향민들이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. 이 망향대는 황해도를 고향으로 여기는 실향민들이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. 이 망향대는 황해도를 고향으로 여기는 실향민들이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. 이 망향대는 황해도를 고향으로 여기는 실향민들이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.

교동도 망향대. 황해도가 고향인 실향민들이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. 이 망향대는 황해도를 고향으로 여기는 실향민들이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. 이 망향대는 황해도를 고향으로 여기는 실향민들이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. 이 망향대는 황해도를 고향으로 여기는 실향민들이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.

